

## 그리스의 재정위기와 브라질 경제

박원복

그리스의 재정위기로 촉발된 유럽 전체 경제의 위기설이 나오는 가운데 브라질 경제 역시도 하루가 다르게 어수선해지고 있다. 특히 브라질 화폐 헤알화의 달러 대비 평가절하가 가속화되고 있는 것으로서, 지난 8월말 1달러에 1.59 헤알까지 상승했으나 지난 9월 23일에는 1.91 헤알로 떨어졌다.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기간에 무려 15.5%가량 평가절하된 것이다. 이에 따라 우선 타격을 받고 있는 곳은 민간부문의 수입업체들이다. 환율의 급격한 평가절하를 예상치 못했던 수입업체들은 거의 대부분 미화로 계약을 체결한 상태여서 헤알 화의 가파른 평가절하가 가져다줄 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수입업체들은 헤알 화의 약세가 지금처럼 지속될 경우 기계류, 에너지, 노동력 등 생산에 필요한 요소(input)의 수입 부담금이 높아질 것이며 이것은 곧 기업들의 비용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물론 당분간 브라질 제조업체들은 이윤의 축소로 그 비용의 증가를 커버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달러화가 1.80 헤알 이상에서 지속될 경우 결국 소비자에게 그 비용이 전가될 수밖에 없어서 6.5%로 잡고 있는 정부의 금년도 물가상승률에 비상이 걸릴 전망이다.

무역연구소(Funcex)의 수석연구원인 페르난두 히베이루는 “1990년대 이래 브라질 산업은 구조적으로 수입 인풋에 의존해 왔으며 이러한 경향은 최근 7년간 심화되었다”고 말한다. 따라서 산업재의 소비에서 수입 인풋이 차지하는 비중이 2003년 10.5%에서 2010년 20.4%로 증가하고 있는



브라질의 화폐 헤알

상황에서 현재와 같은 환율의 급격한 변동은 이 기업들의 사업에 적지 않은 타격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헤알화의 약세는 브라질의 외채에도 영향을 줄 것이다. 브라질은 최근 수년간 헤알화의 강세를 이겨내기 위해 달러로 외채를 끌어왔다. 브라질 중앙은행에 따르면, 2007년 민간부문의 대외채무는 1,605억 헤알이었으나 올해 8월에는 3,469억 헤알로 치솟았다. 무려 두 배가 넘는 셈이다. 그런데 최근 헤알 화가 약세로 돌아서자 민간부문 기업들은 이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금융시장에서 앞 다퉈 헤지(hedge)를 하려고 하였다. 이것은 그만큼 헤알화의 약세가 이 기업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이다. 산업개발연구소(Iedi)의 컨설턴트인 줄리우 세르지우 고미스 지 아우메이다는 “노동력과 에너지 비용이 이미 오를 만큼 오른 상태였는데 환율이 뒤집어지면서 기업들의 이윤 마진이 훨씬 더 낮아졌다”고 진단한다.

그러나 아직은 크게 우려할 상황이 아니다. 왜냐하면 인플레이션 상승 압력요인 가운데 매우 중요한 것이 달러의 강세가 연료가격에 반영되느냐는 문제이다. 만일 브라질이 수입에너지에 크게 의존하는 국가라면 가솔린과 그 파생상품의 가격 상승이 필연적이다. 하지만 브라질은 100% 석유 자급자족 국가일 뿐 아니라, 브라질국영석유공사(Petrobrás)를 통해 얼마든지 석유가격을 조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한 가지 긍정적인 것은 달러의 상승, 즉 헤알 화의 평가절하가 기업들의 비용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보면 헤알 화의 평가절하는 수출업체들의 수익을 높이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헤알 화의 평가절하가 지속될 경우 인풋의 수입선이 국내로 돌아설 전망이나 그것이 현실화되는 데는 보통 1년이 걸리므로, 정부는 헤알 화의 급속한 평가절하를 막아 인플레이션 상승 압력을 줄여야 할 것이다.